

한지공예 기법의 원류 고찰과 한지공예의 분화

전철†

(2011년 1월 14일 접수, 2011년 11월 9일 채택)

A Study on Origin and Differentiation of Korean Paper Art

Cheol Jeon†

(Received January 14, 2011: Accepted November 9, 2011)

ABSTRACT

Jeonji technique was widely used in general Hanji handicraft including Jihwa handicraft. But the technique itself has not been passed on. By contrast, Jiseung technique and Jiho technique have been passed on and continuously developed. And although the Huji technique has not been transmitted, it should be vigorously used as a technique of producing the frame in order to revive the authenticity of traditional Hanji handicraft. Jumchi technique, a method of using water to connect between layers, is an effective technique of diversely expressing the feel of materials of Hanji craftworks. Modern Hanji handicraft has used the characteristics of paper and paperboard diversely produced nowadays as much as possible, which shows that it is more likely to develop as handicraft.

Key words: *Hanji handicraft, Jeonji technique, Jihwa technique, Jiseung technique, Jiho technique, Huji technique, Jumchi technique, Modern Hanji handicraft*

1. 서론

오늘날은 한지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지만 한지공예용으로 적합한 소재는 기본적으로 국내산 목본류나 초본류의 인피섬유만으로 제조한 한지가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원료는 닥나무 인피섬유이다. 닥나무 인피섬유의 기본 특성은 섬유의 길이가 길

고, 강인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보존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견상 광택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드러운 노끈으로 꼰 수 있으며, 물을 먹여 굳히면 방망이질을 해도 깨지지 않아 한지공예의 골격이나 지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가 두껍고 표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감을 주며 양지와는 달리 종이털(紙毛)이 있어 한지그림이나 보수시 짜집기에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흡방습의 성질이

• 전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한지문화산업학과(Dept. of Hanji Culture & Industry, College of Arts & Athletics, Jeonju University, Jeonju, 560-759, Korea)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e-mail : hanjijc@jj.ac.kr

있어 실내 장식용 공예품으로 이용할 때에는 공간의 조습능력을 갖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지는 오랫동안 지니고 사용해도 싫증이 나지 않고,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은은한 미색의 한지 빛깔은 친근한 자연 그대로의 빛깔이며, 우리 민족의 소박한 멋을 담아내고 있어 우리만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여기에 천연염색이라고 하는 한지와 어울리는 염색법이 있어 한지공예의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한지 섬유는 천연의 색상을 간색화(間色化)시켜 톱툭하고 질박한 느낌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 낼 수 있어 한지를 이용한 조형작업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처럼 한지는 단순한 표현매체 이상의 물질성과 동양적 정신성을 동시에 갖게 해주는 소재인 것이다. 이러한 성질은 현대 회화 분야에서도 특색 있는 응용 소재로 활용되면서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닥나무 자숙 인피섬유는 가소성(可塑性)이 있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미술재료들과도 친화성이 있어 다양한 기법의 실험이나 표현시 적합한 표현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성지(成紙)로서의 한지는 공예품 제작 시 꼬기, 찢기, 찌기, 구기기, 짜깁기, 박음질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닥나무 인피섬유와 한지는 한지공예와 회화 부문에서 재료로서 물과 어우러지는 점을 이용해 독특한 조형성을 표현해 내는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한지를 200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韓)브랜드(Han Brand)화’ 지원전략 6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그 우수성을 이용, 첨단산업의 신소재 및 문화상품으로 개발보급확대하고 중국, 일본과는 다른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한 한지를 고급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설정한바 있다. 그 목표 중의 하나가 한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지 공예 이론과 같은 교과목 개발이었다. 오늘날 한지공예가 취미생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권 공예 교육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지공예도 제도권 공예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체계화가 되고, 올바른 인식 속에서 그 기법들이 전수되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한스타일 사업이 추구하는 세계화 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원료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현대 감각의 디자인 교육도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전통공예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지를 정확히 이해한 디자인

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선시 되었을 때만이 한스타일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스타일 사업의 밑거름이 되는 즉, 한지공예의 기본이 되는 이론 분야를 제도권 공예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 시도로서 그 기법을 중심으로 원류를 찾아보고 오늘날 분화된 한지공예의 형태들을 구분해 보고자 했다.

2. 본 론

2.1 한지 공예의 의미

한지공예의 의미를 언급하기 전에 「공예(工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사전에는 공작(工作)에 관한 예술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물건을 만드는 기예(技藝)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자에서 공작(工作)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전통공예와 관계가 깊은 정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지공예 정의의 출발은 공작이라는 단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지(韓紙)는 우리의 전통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작(工作)」이라는 단어는 조선 초기 경공장(京工匠)의 관직(官職)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단어이다. 당시 여러 가지의 수공업 기술자들을 필요에 따라 채용해 경공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종9품 잡직(雜職)이라는 관직을 부여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에서 한지공예의 정의를 찾는다면 한지공예는 한지를 이용해 기능과 장식, 양면을 조화시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예(技藝)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예라는 용어는 중국 당대(唐代: 618~907)에도 있었는데³⁾, 현재의 기술이란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한지 공예도 이러한 공예의 범주 속에서 맥을 같이해 오면서 그 소재만 다를 뿐 일반 공예와 함께 지공예(紙工藝)라는 명칭으로 발전해 왔다. 「한지공예」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지」라는 단어가 쓰여진 최초의 시기는 1952년에 발간된 「대한민국통계연감⁴⁾」으로서 그 이후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 통계연감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록지의 통칭적 의미로 「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당시 1950년과 1951년 한지 생산량을 각각 1,920, 2,820 M/T로 잡고 있다. 영문으로는 Korean Paper로 쓰고 있다.

그 후 국영 기관인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1955년에 공동으로 발간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 보고서」에서 한지라는 용어를 도입해 사용했다. 통계와 관련된 연감과 보고서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유의 명칭을 갖고 생산되었던 수묵지(手漉紙)들이 생산량이 줄어들자 통계의 수월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종이라는 의미로 붙인 한지 용어가 우리의 종이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KS 규격에도 1975년 이후 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도 양지와 한지라는 용어는 KS M 7071, 7072 펄프·종이 용어에도 기재되지 않은 단어이다. 이렇듯 한지라는 명칭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수묵(手漉)으로 초지(抄紙)한 종이의 종합적 의미로서 생겨난 당시의 신조어(新造語)였다. 지공예에서도 자연스럽게 한지라는 용어를 공예 앞에 붙여 우리의 종이공예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요즈음은 지공예라는 명칭보다 한지공예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한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즉 한지는 내구성, 유연성, 통기성, 보온성, 흡수성, 보존성, 가공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손쉽게 공예품을 만들 수 있고, 친근한 오방색과 간색을 이용해 조화시키기 때문에 그 공예품은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며, 우리의 정서와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공예 기법 기법이 있어 똑같은 소재이지만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표현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존(保存)환경만 갖추어 주면 내구성과 통기성이 우수해 오랜 세월 동안 보전(保全)할 수 있는 한지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민족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2 한지공예(韓紙工藝) 기법의 원류와 분화된 형태에 관한 고찰

2.2.1 전지(剪紙) 기법에 관한 원류 고찰

전지기법은 종이를 접어 가위로 오린 다음 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수예(手藝)로서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지공예(紙工藝) 기법의 하나이다. 중국은 최초로 한(漢)대(BC 202~ AD 220)에 색지를 제조⁵⁾한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3~6세기)에 이 기법을 바탕으로 한 전지공예(剪紙工藝)가 성행했다. 그 유물이 1966~1969년 사이에 중국의 신강(新疆)에서 남북조 시대의 전지(剪紙)가 출토 되었고,⁶⁾ <Fig. 1, 2 참조> 그 후 수(隋)·당(唐)대에 들어와 활성화 된 이후 크게 발달하였다. 지금도 전지공예는 중국에서 널리 사랑받는 민간예술의 하나로서 주로 붉은 종이를 이용해 길상문양(吉祥文樣)을 오려 명절이나 생일 등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법이 아주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⁷⁾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법이 설위설경(說位說經), 혹은 ‘종이 바수기’라는 명칭으로 전승되어 무속(巫俗)에서 굿 장소(굿당)를 장식하는 일종의 장엄구(裝嚴具)로서 뿐만 아니라 충남 태안의 얇은 굿 일체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원래 설경(說經) 또는 설위설경(說位說經)은 불교에서 불경을 해설하는 것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법사(法師)의 굿 장소를 종이로 꾸며 장식한 장엄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래 과정은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 중국의 도교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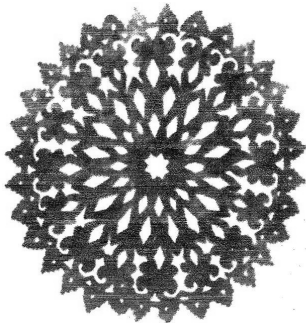


Fig. 1. Jeon-ji of the North and South Dynasties unearthed in Xinji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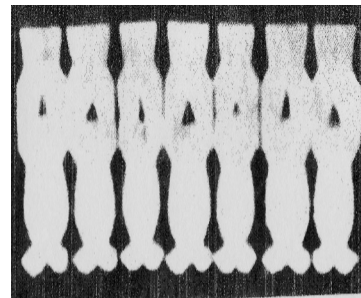


Fig. 2. Dolls Jeon-ji of the Tang Dynasty unearthed in Xinjiang.

교가 습합(習合)하여 오늘에 전승되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전지 기법이 전래되어 왔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삼국시대에 지연(紙鳶)을 제작했다는 기록⁸⁾이다. 지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종이를 자르고 가운데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원을 오려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 말 우왕(禡王)에게 명나라가 사여(賜與)한 관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기록⁹⁾이다. 이 관복과 함께 착용하는 흉배(胸背)에 자수(刺繡)를 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자수를 놓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그려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이 기법을 이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지화(紙花)제조에 이 기법이 적용되었음을 쉽게 기록¹⁰⁾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종의 지공예 기법으로 전승되어 왔음은 확실히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순수한 지공예의 개념으로 「전지공예」라는 명칭으로는 서양문물이 도입되기 전의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지공예품의 유물이 잔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무렵의 유물 중에는 흔히 이 기법으로 제작한 문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에서처럼 전지공예품 자체로서 전래되고 있다거나 유물이 발굴된 적은 없다.

2.2.2 전지(剪紙) 기법을 중심으로 분화된 한지공예의 형태

1) 전지공예(剪紙工藝)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의미하는 순수한 개념의 전지공예라는 명칭이 전래되지 않고,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설위설경(說位說經)에서 전지기법 방식만이 종교적 차원에서 장세일 장인과 문하생들에 의해 특별전시회와 매년 정기발표회를 통해 전지기법이 전수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지공예라는 명칭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지공예가 아니고, 골격에 한지로 초배한 후 다시 화려한 색지를 도배해 만든 공예품에 가위나 조각칼로 문양을 오려 붙여 마감하는 공예를 전지공예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마저도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명칭들이 난무하고 있어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즘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중국 산동성 서하(栖霞)의 민간 전통 전지공예를 실습과 함께 도입해 중국어 학습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의

전지기법의 정통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설위설경의 전지기법과 지화공예의 전지기법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공예교육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전지공예의 정통성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적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2) 지화공예(紙花工藝)

지화공예는 한지를 여러 겹 붙여 일정하게 잘라 꽃을 만드는 지공예로서, 전지기법이 민간차원에서 전승되어 오면서, 역사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지공예의 형태이다. 아직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에는 지화공예에서 발전한 형태로서 실내인테리어나, 조경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조화(造花)공예 기능사 국가 인정 자격시험이 있다. 지화는 굵판이나 농악패의 전수생들에 의해 「꽃일」로 전수되고도 있다. 하지만 사회상의 변화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뜻있는 지자체와 민속박물관에서 전통지화공예 강좌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지공예라는 명칭으로 전승되어 오지 않고, 대상이 되었던 꽃에 명칭을 붙여 전승되어온 것을 보면 그만큼 대중성을 갖고 발전했다는 의미이다. 조선초기인 「태조실록 제2책」의 기록에 의하면 지화(紙花)는 태조 7년 12월 신미(辛未)에 ‘공사(公私)의 연향(宴享)에 세저포(細苧布)로 꽃을 만들어 한 번 쓰고 난 후 다시 다른 데 쓸모가 없게 되오니, 지금부터는 진상이나 사신을 연향하는 외에는 제철에 피는 꽃이나, 물들인 종이로 꽃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자’는 상소를 시행한 기록이 있다. 즉 당시의 조화(造花)는 값이 비싼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이 보다 값이 싼 종이를 이용해 꽃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당시의 조화 재료는 비단, 모시와 같은 사치스러운 것이 사용되었고, 밑납이 이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절제를 요구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자 태종 때에는 ‘궁내(宮內)에서 신료(臣僚)에게 연회(宴會)하는 과상(果床)에는 지화를 사용하고 어람홀기(御覽笏記)에는 홍릉의(紅綾衣)를 없애고 능화지(綾花紙)로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¹¹⁾ 임금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종이로 만든 어사화를 하사하였다. 세종 때에는 공사간의 불교 행사에도 지화를 사용

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1746년)에도 구체적으로 대소연례(宴禮)에 ‘지화만 사용하고 납화(蠟花)를 쓰지 말라’하였다.^{12,13)} 이러한 조치는 대대로 이어져 세조·인조·광해·선조·영조·정조 등 여러 대에 걸쳐 지화 사용을 권장하였다. 그 결과로 지화는 견화(絹花), 금화(金花), 은화(銀花)와 같은 조화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아졌다.¹⁴⁾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 무속에서도 의례용으로 지화를 이용했으며, 여염집에서는 혼례상이나 잔치상을 치장하는데 이용했고, 상여를 지화로 치장하는 등, 우리 민족에게는 단순한 지화가 아니라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했던 꽃이었다. 지화가 상화(床花)로 사용된 이유는 다른 재료로 만드는 조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러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전해 오는 유물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불에 태우거나 버리는 관행과 일부 종교나 무속신앙에서만 사용하는 꽃으로 잘못 알려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화도 기타의 재료를 이용하는 조화와 함께 이미 고려시대에 왕실의 연회에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도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공예인 것이다.

3) 색지공예(色紙工藝)

색지공예는 한지를 기물(器物)에 여러 겹 덧발라 만든 골격에 다양한 색지로 피복한 후 전지기법으로 여러 가지의 문양을 제작해 오려 붙여 만드는 공예로서 기물의 재료로는 오늘날은 주로 하드보드(hard board)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색지는 한지를 전통천연 염료로 염색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과 녹(綠), 벽(碧), 홍(紅), 유(驪), 자(紫)색의 오간색이 기본이 되었다. 문양을 표현해 내는 기법으로 양각, 음각, 투각기법이 있다. 양각(engraving in relief) 기법은 전지기법을 응용할 수 있으나 음각(engraving)기법과 투각(bratticing)기법은 기물자체에 적용하는 기법으로서 일종의 조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색한지공예, 전통오색전지공예, 전지공예라는 이명(異名)이 있으나 그 기법은 색지공예와 같다. 이 색지공예의 유래와 역사는 규방문화(閨房文化)가 발달해 성행하기 시작한 조선시대 중기부터라고 사료된다. 당시의 규방공예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지함(紙函)이나 지상(紙

箱)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종이를 두텁게 합지한 것, 만경류, 유연한 나뭇가지, 대나무 등이 골격으로 이용되었으며 당시의 공예품은 생활 공예품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규방용으로 소품을 만들어 보관용이나 수장용으로 이용한 형태가 색지공예의 원류이다. 지함은 주로 의류를 넣어 보관하는 여성용 수장가구로 겉면은 색지를 오려붙여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었고, 지함보다도 작은 규모인 지상 역시 색지를 오려붙여 화려하게 장식한 것으로 조그마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오늘날은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 지장공예(紙粧工藝), 지회공예(紙繪工藝), 고색한지공예(古色韓紙工藝)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4) 지장공예(紙粧工藝)

지장(紙粧)공예는 지함(紙函)이나 지상(紙箱)을 만들었던 색지공예에서 크기와 소재, 용도를 달리하면서 발달한 공예로서 나무로 골격을 짜고 그 위에 종이를 붙여 만든 가구이다. 지장용 재료는 사용하던 가구가 낡았거나 겉면에 흠이 생겨 보기가 흉한 가구 자체를 이용하거나 재질이 떨어지는 판재를 이용해 처음부터 짜기도 했다. 지장용 가구의 특징은 내부에 한지를 발라 판재의 치수안정화를 기하면서, 나무가루 좀 발생 억제와 내부에 습기 방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겉면 전체에 한지를 두세 겹 바르고 콩기름이나 마늘 즙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칠해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먼지가 많이 끼고, 지면의 기름기가 산화되면서 냄새가 나고 지면이 오염되기도 해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반면에 문짜과 테두리, 기둥은 가구용 판재의 목리 문양을 살려 짜고 쥐벽칸, 머름칸, 복판 등은 한지를 발라 고급화하는 지장도 있다. 고급 지장에는 기호에 따라 내부의 한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시구(詩句)를 써서 장을 치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지장과 지농(紙籠)은 값비싼 가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한 서민가구로서 리사이클이 가능한 가구공예의 한 형태이다. 장과 농은 뚜렷이 구분했는데, 장은 몇 층이든 하나로 되어 있으며, 서랍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은 각층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이단이나 삼단으로 포개어 사용하며, 서랍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버선장은 얘기 장이라고도 하며, 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공간 활용을 했고, 잘 사는 사대부 규수방

에서 주로 사용 하였으며, 이것 또한 2층이나 3층으로 사용하였다.

2.3 지승(紙繩)기법의 원류에 관한 고찰

‘지승’의 사전적 의미는 ‘지노’와 같다고 기술하면서 지노는 종이로 끈 노끈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노’는 실·삼·종이 등을 이용해 가늘게 비비거나 끈 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¹⁶⁾ ‘승(繩)’의 의미인 끈다는 행위는 종이가 발생되기 훨씬 오래 전인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상호 간의 의사를 나눌 때 주로 말을 사용했는데, 이 때 이미 한 말을 기억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한말을 기억해내는 방법으로 줄을 비벼 꼬아 만들고 매듭을 지어 기억을 대신했다. 즉 결승기사(結繩記事) 방법인 것이다. 이는 꼬아 만든 결과물인 매듭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매듭진 모양을 가지고 한 말을 기억해 내고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3천 년 전 주(周)나라 때 동기(銅器)에 매듭으로 표시한 명문 <Fig. 3 참조>이 새겨져 있어 오늘날의 중국어인 한문을 창안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¹⁷⁾ 이처럼 문명과 함께 이루어진 행위가 ‘승’인 것이고, 이 때 ‘노’의 대상이 되는 재료로서 펄 수 없는 것이 삼(대마)과 짚일 것이다.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 꼬는 행위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인류의 기원부터 인간과 함께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였고 보편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 먼저 선행된 꼬는 기법은 각종 공예품이나 농구(農具)를 제작하는데 중요한 기법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즉 언어생활 속의 지혜로부터 발달된 꼬는 행위는 재료를 달리하면서 가공제품인 종이를 풀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종이를 꼬아 일상 용구를 제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 응용되었다. 이렇게 응용되어 온 지승기법은 꼬는 재료를 중심으로 독립적 영역을 구축해 오면서 발전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매듭장 제도¹⁸⁾가 있어 꼬는 기법을 중요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꼬는 대



Fig. 3. Knot marked on the bronze bowl of the Chou Dynasty.

상 재료 중 직접적으로 종이를 대상으로 한 ‘지승’이라는 용어는 지승반결(紙繩盤結)¹⁹⁾이라고 하는 단어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지갑(紙甲)을 만드는 방법으로 노끈으로 개암모양을 만들어 붙이고, 노끈으로 꿰맨다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호기법이 주로 아낙네들에 의해 전승되어지고 이루어진 반면에 지승기법은 새끼를 꼬는 작업에서 응용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남정네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다가 오늘날은 주로 여성들의 공예기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의 긴 명(命)을 염원하는 뜻에서 길게 끈 지승으로 돌상을 만들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때 선진(鮮展)에 공예부가 생기면서 활성화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오다가 전통공예 기능을 부활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1970년대에 충남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금 각광 받는 전통한지공예기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승공예(紙繩工藝)라는 한 명칭만으로 전승되고 되고 있어 그 역사성과 정통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공예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에 대한 응용은 지사(紙絲)로 응용되고 있으며 섬유직물로 응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4 지호(紙糊)기법의 원류에 관한 고찰

지호공예는 천연(virgin) 펄프 상태로 목재펄프나 닥펄프를 이용하기도 하나 주로 파지나 코팅되지 않은 폐지, 신문지, 닥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다음(혹은 수산화나트륨을 가해 가마솥에 넣고 자비(煮沸), 수세하기도 함) 펄퍼(pulper)로 해설했던 뒤 수분을 제거한 다음 메쉬(mesh)별 다단 체(sieve)로 걸러 리사이클 펄프를 분류 한 후 풀과 고르게 섞어 용도에 합당한 펄프의 메쉬를 골라 골격의 내부에 발라가면서 그늘에 건조해가는 방법을 반복하는 기법이다. 형상이 완성된 후 골격을 때내고 채색하거나 옷칠을 하여 마무리 한다. 오늘날은 성형틀을 이용해 압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지부조(韓紙浮彫), 닥종이 인형, 종이 탈, 조형 미술에서도 이 기법을 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칠불(乾漆佛)을 지불(紙佛)이라고도 하는데, 이 건칠불에는 지호기법은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왕조실록 자료에도 지호(紙糊)기법은 언급된 바가 없다. 근래에 불상을 지호기법만으로 제작했다면 건칠불과는 관계가 없고, 닥종이 인형과

같은 기법으로 지불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후기의 투박한 지호공예 기물에서 보듯이 섬세한 부분은 닥섬유의 특성상 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불과 같은 섬세한 지호공예가 가능한 것은 단섬유(短纖維)인 목재펄프를 쉽게 해섬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의 지호기법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원료가 신문지이나 이 신문지는 결합력이 약해 내구성과 보존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건조하면서 할열(割裂)이 생길 우려가 많다. 지호기법은 많은 양의 펄프를 필요로 하고 건조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호공예가 발달한 시기는 양지를 이용해 신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한 이후이기 때문에 한성순보가 최초로 창간된 고종 20년(1883년) 이후부터이거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종이(洋紙)가 제조된 고종 39년(1902년)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구성과 보존성, 친환경을 고려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닥나무 인피섬유만을 활용하는 지소공예(紙塑工藝) 차원으로 바뀌면 원료측면에서 한지공예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료적인 측면에서 지호공예의 역사를 계산해 보면 10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1 지호(紙糊) 기법을 중심으로 분화된 한지공예의 형태

1) 닥종이 인형 공예

인형은 좁은 의미로는 사람의 모습을, 넓은 의미로는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가공의 생물을 포함하여 어떤 모습을 닮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을 말한다. 닥종이 인형 공예는 소조(塑造)의 표현 방법을 이용하면서 종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통공예이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인형은 조각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법에 충실한 분류라고는 볼 수 없다. 조각(彫刻)과 소조(塑造) 기법은 작업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로 인형은 점토나 나무, 형겔 등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어린 아이들이 놀이용으로 이용했다. 고대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나 중세 이후부터는 관광 상품이나 장난감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형을 각시라고도 했는데, 이 뜻은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 인형이 여성을 뜻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세계 각 나라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놀음을 각시놀음이라고 불려왔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이 되어 있다.²⁰⁾ 닥종이 인형공예와 종이인형공예라는 명칭이 상충되고 있으나 인형 제조시 닥종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종이부조(종이浮彫)

종이부조는 시간과 노력, 인내를 필요로 하는 번거로운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독특한 조형 장르로서 두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 하나는 탈공예와 작품부조이다. 먼저 점토를 이용해 자기(磁器, porcelain)를 만든 후 그 위에 석고를 부어 종이부조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습윤 닥섬유(일명 닥죽)를 발라 가면서 건조시키는 작업을 반복해 작품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닥섬유 부조인 것이다. 그리고 형태상으로 부조는 조각(彫刻)의 환조(丸彫)와 대립되는 개념을 갖고는 있으나 닥섬유를 이용해 부조를 할 경우에는 소조(塑造)의 개념처럼 붙여나가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닥섬유 부조는 조각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또 다른 한지부조의 형태는 판지(板紙)와 같은 두꺼운 시이트나 한지를 두께가 다른 스폰지나 펄프시트에 붙여 이를 중부조(中浮彫), 고부조(高浮彫) 처럼 두께 조절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한 다음 채색하는 기법의 종이 부조가 있다. 일종의 모자이크 기법인데 볼륨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한 기법을 이용한 부조는 아니고 회화의 기법과 모자이크의 기법, 소조의 기법을 적절히 이용하는 종합적인 현대 부조 공예라고 할 수 있다.

2.5 후지(厚紙)기법의 원류에 관한 고찰

후지기법은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두껍게 만드는 기법이고, 두껍게 만든 종이를 여러 번 접거나 잘라 갖가지 형태의 기물을 만드는 공예를 후지공예라고 한다. 표면에 요철무늬를 넣기도 하고 옷 칠을 하여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 공예품은 가죽과 같은 질감이 난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용도를 구분해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후지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아 백성의 피해가 많다고 하면서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²¹⁾ 이외에도 금지령을 내린 기록은 많이나

타고 있다. 그렇지만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궁(油弓)·전립(箭笠)·모(帽)·안룡(鞍籠) 등과 같은 공예품에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저화(楮貨)로 이용²²⁾되기도 해 그 용도가 공예용 외에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더욱 두텁게 합지한 후 접어 갖가지 기물을 만드는 골격으로 이용했을 때는 그 폐해가 더욱 심했을 텐데 이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골격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늘날은 이 골격을 하드보드로 대체하고 있어 전통한지공예의 정통성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닥섬유와 같은 인피섬유를 이용해 한지공예용 골격이 제조되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2.6 줌치치기 기법의 원류에 관한 고찰

‘줌치’라는 용어의 인터넷 사전의미는 경남과 제주의 방언으로서 ‘주머니’를 뜻한다고 했으며 주머니의 옛말이라고 적고 있다. 또 하나는 과거 할머니들의 속바지 속에 있는 복주머니를 뜻하는 말로 호주머니를 뜻한다고 적고 있다.²³⁾ 즉 주머니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라는 것 밖에는 알 수가 없다. 출판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말의 ‘줌’은 명사로서 주먹의 준말이며, 의존명사로서는 한주먹으로 절만한 분량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치’는 몫이나 분량을 뜻하는 의존명사이고, 절구질, 달구질, 도끼질, 따위를 되풀이 할 때 내는 소리인 감탄사로 기술하고 있다.²⁴⁾ 따라서 주머니를 의미하는 ‘줌치’에 줌치를 만들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함께 포

함된 ‘줌치치기’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지 제조과정에서 압착이 이루어진 습지 층상에서 건조하기 전에 원하는 두께 만큼의 장수를 가능한 후 버개를 떼어내면 두꺼운 습지상태의 합지가 되는데, 이를 부분 별로 주물러 한 주먹으로 절만한 분량으로 만든 다음, 손으로 주무르거나 손바닥에 내려쳐 중간 결합을 유도하는 작업이 줌치치기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질감을 갖는 한지를 압착 건조해 만든 종이 ‘줌치한지’이다. 한지를 이용해 줌치치기로 처음 주머니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라져 가는 우리말을 오늘날 되살리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적절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명칭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삼국유사²⁵⁾와 고려도경²⁶⁾, 조선왕조실록에도 호주머니(줌치)를 의미하는 용어가 ‘낭(囊)’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지 순수한 의미의 우리말로는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은 임금에게 선물로 선사하기도 했고 임금이 하사하기도 했다.^{27,28,29,30)} 또한 발기(發記)의 품목에도 줌치가 들어 있으나 종이와는 관계가 없고 거의가 비단과 같은 직물을 이용해 만든 줌치 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오늘날의 줌치와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닥종이로 만든 조선 후기의 지낭(紙囊)유물³¹⁾<Fig. 4 참조>도 오늘날의 완전한 줌치치기 기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닥종이를 여러 겹 폴로 붙인(厚紙技法) 다음, 주머니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무르고 요철을 넣어 제작한 것이다. 반면에 연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Fig. 5와 같은 지낭과 담배 삼지는 오늘날의 줌치치기 기법을 이용해 제작했음을 표면의 질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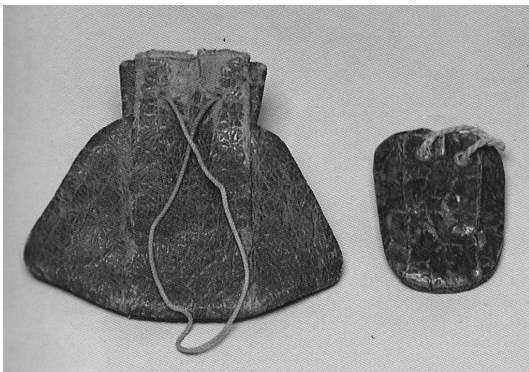


Fig. 4. Paper pocket Manufactured by Hujji tech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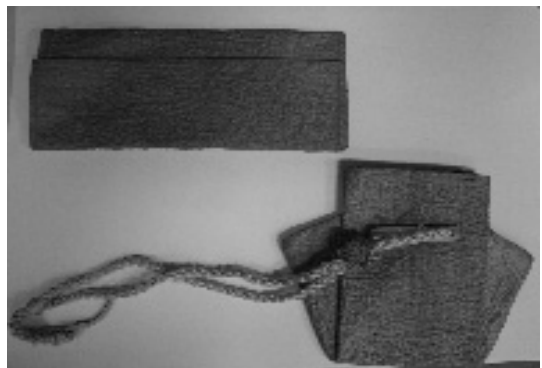


Fig. 5. Cigarettes case and paper pocket manufactured by Jumchichigi technique.

치기 기법은 후지기법의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로운 응용기법으로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해 층간 결합을 시켜 후지로 만드는 기법으로서 줌치치기 동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질감을 표현해 낼 수 있는 한지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2.7 종이접기 원류에 관한 고찰

현대적인 개념의 종이접기공예 또는 접지공예(摺紙工藝)는 크기가 정형화 되지 않은 종이를 접어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접는 행위 자체만을 본다면 유연성이 있으면서 평편한 물건은 모두 접는 행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제작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접는 행위를 해왔을 것이다. 따라서 접는 행위 자체는 익숙해진 동작인 것이다. 다만 대상이 종이가 된 것은 당연히 종이가 제조된 이후부터 일 것이다. 최초의 종이 개념은 충전용이거나 물건을 포장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접는 행위도 도입되었을 것이다. 이후 종이의 용도가 확대 되어 서사(書寫), 서화(書畵), 인쇄(印刷), 신앙의식, 지공예, 민속용, 주거용으로 이용되면서 접지방법이 다양해지고, 기교가 생기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접지공예로 발전해 왔으리라고 사료 된다. 우리나라 고문헌에는 접지공예(摺紙工藝)라는 용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접지(摺紙)라는 용어는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즉 종이를 접어서 미늘을 만들고, 녹비로써 엮어 만들어, 검은 칠을 한 것은 ‘지갑(紙甲)’이라 한다.³²⁾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종이접기뿐만 아니라 한정지어 정의를 내리고 그 뿌리를 찾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전통 지공예의 범주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소재가 되고 있는 색지가 목재펄프를 이용해 제조한 색종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용은 색상 견뢰도와 보존성이 보장되는 100% 국산 색한지가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한지공예 중 김인정 교수가 만들어낸 것은 접지공예가 최초이다.³³⁾ 이러한 사실로 보아 종이 접기는 교육용으로 가치가 충분한 종이공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1989년 3월에 한국 종이접기협회가 창립되어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8 현대 한지공예의 발달

현대 한지공예는 1970년대부터 한지와 닥섬유를 때

쳐로 한 작품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그 위치를 굳혀왔다. 동양에서의 종이 예술은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원료를 이용해 제조하는 수묵지를 이용하다가 원료자체와 가공 처리된 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표현기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함께 미술작품의 다양화는 결국은 수묵지라고 하는 원시성의 종이를 벗어나 기계지라고 하는 기능성 종지와 특수지들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이는 현대감각의 디자인과 인쇄매체가 접목되면서 다양한 표현기법이 가능해졌고, 이를 산업으로 접목시키는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현대 한지 공예는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21세기의 트렌드인 에코와 그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1 한지그림(Korean hand-made paper picture) 공예

오늘날은 한지를 비롯한 종이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예술성을 찾고자하는 노력들이 많아 다양한 형태의 종이공예가 탄생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회화에 바탕을 두면서 한지의 특성을 살려 대지(臺紙)위에 한지를 재료로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가는 공예이다. 이 공예는 그리기와 붙이기, 찢기, 짜깁기 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이 가능한 것은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인피섬유가 장섬유이고, 장섬유로 구성된 한지는 유연성이 있고, 찢을 때 지모(紙毛)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법이다. 그리고 자숙과 표백이 양호하고, 화학약품이 남아 있지 않은 닥나무 인피섬유는 흡수성이 좋아 색상을 선명(vivid)하게 표출해 낼 수 있으며 간색의 경우, 농도 조절을 통해 착색시키면 다양한 톤의 색상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색한지나 닥섬유를 활용할 때 회화적인 측면에서도 독특한 색상을 갖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작업방법도 다양해 재활용 볼펜이나 송곳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조그마한 한지 조각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회화이자 공예인 것이다. 이처럼 작업방법이 용이하면서 한지가 주는 독특한 멋스러움을 회화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상화, 비구상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장르에서도 표현이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기법이 응용

되고 있는 것이다.

2.8.2 종이조각(paper sculpture)공예

제지기계의 발달과 섬유 종류의 다양화, 종이 용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인해 지금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종이와 판지들이 꾸준히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종이와 판지의 다양성과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승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가 Paper Art이다. 이 분야에서는 종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조각의 영역까지 이끌어 내어 미술의 한 장르로서 구축한 것이 종이조각 공예이다. 이 조각공예는 판지가 갖고 있는 물성적 특성을 활용해, 자르고, 접고, 굴리고, 구부리고, 감고, 스크래칭(scratching)하는 등의 다양한 기법과 작업을 통해 3차원의 구성물을 만들어 내는 공예이다. 다양한 형태의 종이와 판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응용력과 기법의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해 나갈 분야가 많은 공예이다.

2.8.3 종이장식(paper decoration)공예

종이 탄생의 계기가 된 것은 대마(大麻)로 직조한 삼베옷이 열화(劣化:ageing)되면서 생긴 대마섬유이다. 당시에는 천연(vergin) 상태의 대마 섬유를 종이의 원료로 만들 수 있는 지해도 없었고 의식주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마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대마로 만든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화된 잔 섬유들이 빨래터에 많이 가라앉은 것을 보고 청소차원에서 인근의 바위 위에 걸어낸 것이 건조되면서 시이트(sheet) 상으로 편평해 진 것에 착안해 종이를 만들게 된 것이다. 즉 당시에는 길진 마섬유를 자숙(cooking)하고 고해(beatng)해 섬유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대마로 만든 옷이 헤어지거나, 밧줄로 이용했던 것들이 열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물에 풀어 발로 건져내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종이의 탄생은 대마의 님마펄프(리사이클펄프)를 이용해 최초로 탄생한 것이다. 종이의 탄생처럼 처음부터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종이 인 것이다. 오늘날 시대정신에서 요구되는 리사이클과 리필 차원에서 주변의 버려진 자원을 종이와 함께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생

필품이나 환경을 가꾸는 장식품으로 만들어 이용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 즉 표현에 제한이 없고,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어떤 분위기라도 연출이 가능한 공예이며, 작가의 이미지나 감각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창작 작품도 가능한 공예이다.

2.8.4 포장아트(packaging art)공예

포장은 적합한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휴대, 저장, 보존, 보호, 운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포장이 가능하도록 포장소재를 디자인하는 것이 포장아트이다. 오늘날은 포장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가해 가고 있다. 이미 발전해 온 산업적 차원을 떠나 공예로서의 포장아트의 개념은 개인뿐 아니라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도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포장아트는 상품의 시각적인 매력을 부여하고, 독특한 멋을 지닐 수 있게끔 하는 공예이다.

2.8.5 스크랩북킹(scrapbooking) 공예

추억의 글이나 그림, 사진, 자료 등을 디자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고 오래 기억될 수 있게끔 장식하는 작업이 「스크랩북킹」이다. 스크랩북킹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어 취미활동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접기, 종이공예, 종이감기, 스탬프 아트, 포크 아트, 압화 등 다양한 생활 공예와 연계가 가능하며, 활용범위가 넓은 뿐 아니라, 색지와 물감, 문자 등을 이용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창조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생활 예술이다.

2.8.6 북아트

북아트(Book Art)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책과 예술과의 만남을 연계하는 공예이다. 북아트 페어와 같은 시장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대학의 도서관이나 미술관, 갤러리에서도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 현대 Paper Art이다. 특히 어린이 북 아트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기, 글쓰기, 그리기와 같은 통합교육이 가능해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고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 미술장르를

예쁜 노트, 앨범, 스크랩북 만들기 등 실용적인 한 부분에만 국한 시켜, 중세이전의 책의 역사에서 그 원류를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발달한 전적류(典籍類) 장정(裝幀)의 기법³⁴⁾에서도 그 원류를 찾아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단기과정에서부터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까지 과정이 개설되었고, 캐시 코트니와 같은 북 아트 평론가, 컬렉터, 북 아트 이론가, 복원가등 직업의 세계도 다양하게 열려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지공예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에 관한 원류를 찾아보고 이 기법을 활용해 발전하고 있는 한지공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류상 한지공예 기법에 따르지 않고 현대에 와서 발전하고 있는 공예는 현대공예로 분류해 기술했다. 원류와 분류에 중점을 두었기에 자세한 기법의 공정은 생략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지기법은 삼국시대에 중국의 도교와 불교가 습합(習合)하여 오늘에 전승되어져 왔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원류로 해서 분화된 한지공예는 전통한지공예로 분류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종류도 가장 많았다. 또한 명칭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난립되어 있어 용어 통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2) 지승기법의 원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꼬는 행위에서 찾을 수 있었고, 한지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 가공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에 적합한 기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원류에 충실했고, 분화된 다른 형태의 공예명칭도 없었다.

3) 지호기법은 조선 시대 말기에 활성화되었고 오늘날 지불과 같은 섬세한 지호공예가 가능했던 것은 쉽게 해섬이되는 리사이클 단섬유인 신문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호기법은 10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한지공예기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닳나무 인피섬유를 미세화 시켜 사용해야 내구성과 보존성을 높일 수 있었다.

4) 후지기법은 후지사용을 금지한 조선시대 초기에서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본격적으로 두텁게 합지한 후 접어 갖가지 기물을 만들었고, 골격으로

이용한 때는 조선시대 말기로 추정할 수 있었다. 전통 후지공예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는 닳나무 인피섬유와 같은 비목질 펄프를 이용해 두꺼운 골격용 하드보드(hard board)가 제조되어야 강도적 성질이 개선되어 발전할 수 있는 공예기법이었다.

5) 줌치치기 기법은 후지기법의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로운 응용기법으로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을 사용해 층간 결합을 시켜 후지를 만들면서, 줌치치기 동작을 달리해 다양한 형태의 질감을 표현해 낼 수 있어 한지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었다.

6) 종이접기는 현대적인 개념의 종이접기공예로 인식하고 있으나 접지(摺紙)라는 용어는 우리의 고문헌 기록 중 지갑(紙甲)을 만드는 공정에서 찾아볼 수 있어 현대적 개념의 종이접기뿐만 한정지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색한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100%의 국산 닳나무 인피섬유 이용과 지료 조성을 통해 뽀뽀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조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색한지의 견뢰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였다.

7) 현대 한지공예는 전통한지공예의 각종 기법을 응용해 사용하면서 한지공예의 예술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공예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아울러 종이 종류도 한지와 양지, 판지를 가리지 않고 응용하고 있었고 서양에서 추구하고 있는 Paper Art 정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인용문헌

1. 이웅백,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p.197(1988).
2.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p.254(1976).
3. 이세종, 도자기 성형 제작을 통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연구, 전남 중등미술교육연구회, p.2(2007).
4.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1952)
5. 余嘉錫, 書冊制度補考, 余嘉錫論文雜著, 下冊, 中華書局, 北京, pp.539~559(1963).
6. 潘吉星, 中國造紙技術史稿, 文物出版社, 北京, pp.78~79(1979).
7. 임종업, 한겨레신문 문화면, 6월 18일자 기사(2007).
8. 三國史記, 第41卷, 열전 1, 金庾信 條 12.

9. 太祖實錄, 卷 2, 1年(1392) 12月 12日(戊午) 2번째 기사.
10. 宣祖實錄, 卷 117, 32年(1599) 9月 15日(辛酉) 1번째 기사.
11. 太宗實錄, 卷 28, 14年 12月 庚午.
12. 英祖實錄, 卷 19, 4年 8月 丙申.
13. 英祖實錄, 卷 63, 22年 4月 丙戌.
14. 世祖實錄, 卷 24, 7年 4月 辛未.
15. 光海君日記, 卷150, 12年 3月 甲午.
16. 이응백외,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p.1901(1988).
17. 김주현, 전통문화, 2월호, 중국매듭①, pp.116~121 (1986).
18. 大典會通, 工典.
19. 宣祖實錄, 卷 96, 31年(1598) 1月(戊戌) 5번째 기사.
20. 洪錫謨(朝鮮) 等篇,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 京都雜誌 合本), 朝鮮光文會 發刊, p.25(1907)
21. 太宗實錄, 卷 14, 7年(1407) 정해/명 영락(永樂) 5년 10월 24일(갑진) 1번째 기사.
22. 太宗實錄, 卷 1, 1年(1401) 신사/명 건문(建文) 3년) 4월 6일(갑자) 3번째 기사.
23. <http://dic.search.naver.com>
24.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p.2563, p.2859 (1976).
25. 三國遺事, 景德왕조(景德王條).
26. 高麗圖經, 卷 20, 婦人
27. 文宗實錄, 卷 3, 즉위년(1450年 8月 25日(丙申)) 3번째 기사.
28. 世祖實錄, 卷 1, 1年(1455年 7月 9日(壬午)) 2번째 기사.
29. 睿宗實錄, 卷 4, 1年(1469年, 윤 2月 1日(丙辰)) 2번째 기사.
30. 成宗實錄, 卷 148, 13年(1482年 11月 3日(丁酉)) 5번째 기사.
31. 국립민속 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도서출판 신유, p.71(1995).
32. 五禮通考, 卷 233-卷245, 軍禮, 兵器 기사.
33. 문교부 김정필, 종이접기, 문화교육출판사, 1차 교육과정(1955년).
34. 서정호,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경인문화사, pp. 321~322(2008).